남북한 스포츠교류의 역사와 전망



현주
경기대학교 스포츠건강과학연구소 연구원
북한 체육, 예술, 미디어에 관심
hyu1003@naver.com

들어가며

남북한이 분단 된지 70여 년이 지났다. 이는 현재 한반도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이 분단 이후의 세대[1]임을 의미한다. 또한 장기간의 분단지속 상황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상이한 문화가 공고화된 이질적인 두 사회가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 '한민족공동체'나 민족적 동질감을 고취하여 두 사회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주민 간의 소통의 장(스포츠교류, 문화교류, 이산가족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민족공동체의식'과 민족적 동질감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1)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3월 31일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수는 6만1천322명이다. 연합뉴스(2017. 5. 3).



출처: shutterstock

이 같은 소통의 중요성은 독일통일사례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단기적으로 독일통일은 1989년-1990년 사이에 통일의 창이 열렸던 콜(Helmut Kohl) 총리의 정책에 있지만, 장기 지속(longue durée)적인 차원에서는 1950년대부터 스포츠교류, 방송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 다양한 인적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민족적 동질성' 회복과 '민족공동체의식'을 강화한 것에 기인한다. 독일통일 사례는 민족적 동질성 회복과 '민족공동체의식' 강화를 위해서 교류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고 있다.

한편 남북한 스포츠교류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단일팀구성이나 공동응원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민족적 동질성과 한민족공동체의식을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스포츠교류만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남북한 스포츠교류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바 있다.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와 1991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을 통해 남북한 스포츠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5년까지 진행되었으나, 이후 스포츠교류는 남북한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한동안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스포츠계 일부에서는 실망과 더불어 민간주도하의 남북한 스포츠교류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민간부문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주의 체제의 북한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북한에서 모든 스포츠단체는 국가가 관리하며, 정치적, 선전적 목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relative autonomy)을 지닌 우리의 스

포츠단체와는 다르다. 따라서 남북한 스포츠교류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정치적 특성이 강한 스포츠교류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가 함의하고 있는 정당한 경쟁(agon)과 인간의 탁월성[2]은 결국 동서독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일을 이룬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을 감안하면, 정치적인 스포츠교류지만 스포츠가 가진 휴머니티를 통해 민족감정을 강화할 수 있다.

남북한 스포츠교류의 역사

남북한 체육회담

남북한은 동서독과 달리 분단직후 전쟁으로 인해 소통의 공간이 막히게 되었고 그 결과 두 사회는 점차 극단적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남북한과는 달리 동서독의 경우에는 이미 1950년대에 다양한 인적 교류(스포츠[3], 문화, 방송[4], 학술 등)가 시작되었다. 독일과 남북한의 차이는 1964년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에서 잘 드러난다. 동서독은 1961년 동독 정권의 베를린 장벽 설치로 상호관계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은 단일팀을 구성하였다. 이에 반해 남북한은 1963년 체육회담을 3차례만[5] 진행하였을 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후 남북한의 체육회담은 남북한의 대표가 만나는 형식적 · 상징적인 역할로 계속 제한되었다. 남북한 체육회담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결실을 맺은 것은 체육회담이 시작된 후 28년이 지난 1991년이었다.[6] 그러나 제한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체육계 대표의 만남 하나만으로도 경직된 관계의 이완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또한 지속적 체육회담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는 한편 서로의 의견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1990년까지 남북한체육회담(1979년 평양탁구대회선수권 관련 4차례 체육회담–단일팀구성, 1984년 LA올림픽 관련하여 3차례 회담–단일팀구성, 1988 서울올림픽 관련 4차례 체육회담–단일팀구성 및 공동개최, 1990년 베이징 아시아경기 관련 9차례 체육회담–단일팀 구성 등)은 나름대로 남북한 스포츠교류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남북한 스포츠교류

체육백서(2016)[7]에 따르면,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평양, 서울)를 시작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2015년까지 스포츠교류는 1990–1999년 7건, 2000–2009년 42건, 2010–2015년 8건으로 총 57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전후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6–8건의 남북한 스포츠교류가 진행되었거나 될 계획에 있다.

---

2) Elias, Dunning(2014). 스포츠와 문명화: 즐거움에 대한 탐구. 송해룡(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7–30.

3) DSB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1957년부터 1961년 8월 16일 까지 1957년(1530), 1958년(386), 1959년(624), 1960년(683), 1961년(738)회의 동서간의 스포츠교류가 있었다. 통일부 · 주독대사관(1993). 동서독 교류 협력 사례집. 통일부. 658

4) 1956년 동독 방송이 서독과 같은 CCIR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동독지역에서 서독 TV방송 시청도 가능하였으며, 1972년 동 · 서 기본 조약이 체결로 방송, 언론이 공식적으로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다김영욱, 심영섭 (2011). 통일과 연론: 독일의 경험, 한국언론진흥재단. 68. 안지호, 현주 (2017). 자본주의 미디어가 사회주의 국가의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동독과 북한비교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지. 27(2). 63–64.

5) 1월 24일 스위스 로잔, 5월 17일 홍콩, 7월 26일 홍콩 문화체육관광부 (2016). 체육백서. 문화체육관광부. 499

6) 남북한은 최초로 1991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에서 단일팀을 구성하는데 합의하였다.

7) 문화체육관광부 (2016). 체육백서. 문화체육관광부. 500–509

1990년대 남북한 스포츠교류

1990년대는 남북한 스포츠교류의 초기단계로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2건), 1991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등 4건이 있었다. 이 시기에 남한은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 스포츠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진다. 반면 북한은 1980년대 후반 동구권 사회주의국가의 몰락으로 인해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특히 1990년대 북한은 자연재해(1993-1999: 냉해, 대홍수, 고온 및 해일과 가뭄, 강우부족 등), 지도자 교체(1994: 김일성사망)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북한사회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8]의 결과 계획경제체제가 붕괴[9]되어 수많은 아사자[10]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 북한은 외교적 고립, 경제난으로 인해 국제스포츠의 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남북한 스포츠교류 역시 북한의 내부사정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남북한 스포츠교류가 재개된 시점은 북한이 경제난을 어느 정도 극복한 1990년 후반부터였다. 1999년 8월에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로 남북한 스포츠교류가 재개되었으며, 이 시기에 남한의 민간기업도 스포츠교류[11]에 참여하였다.

2000-2009 남북한 스포츠교류

2000년대 남북한 스포츠교류의 대표적 사건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한 선수단의 공동입장이었다. 1990년, 1991년에 남북한 선수들이 축구와 탁구에서 단일팀을 구성한 바 있었지만,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되는 올림픽 개막식에서 양측의 선수단이 공동입장을 한 경우는 처음이었다. 남북한 선수단의 공동입장을 통해 남북한은 세계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알렸으며, 향후 전개될 남북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었다. 실제로 시드니 올림픽 남북한 공동입장이 있었던 2000년대는 지금까지 57건의 남북한 스포츠교류(1990-2015) 중에 42건(73.68%)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활발한 시기였다. 이 시기의 남북한 스포츠교류는 축구(18), 태권도(5), 금강산 자동차질주경주대회(2), 농구(1). 탁구(1), 유도(1), 레슬링(1) 등의 종목들과 각종 국제대회(올림픽3, 유니버시아드1, 아시안게임5)와 기타(4)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2000년대의 교류 활성화 정부차원에서의 관계개선 때문이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이 결정적이었다. 김대중 정권은 2000년 6.15 공동선언으로 대표되는 '햇볕정책'을 통해 스포츠교류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상봉,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형성 등 여러면에서 남북 간의 교

8) 고난의 행군은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나라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김정일이 내놓은 당적 구호로써 1996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제시되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북한지식사전. 통일부 통일교육원. 33.

9) 평양거주자 60%가 식량배급을 받은 반면, 강원도 거주자 75%, 함경남도거주자71.4% 함경북도거주자 66.7%, 양강도 거주자 63.3%가 식량배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황나미 (2012). 북한주민의 공공 식량배급 수혜상황과 영양취약 아동규모추계.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85호. 61-62.

10) 통계청의 북한 인구추계에 의하면 북한에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경제난과 기아로 인한 초과사망자는 33만 6천명이며, 1994년부터 2005년까지의 초과사망자는 48만 2천명규모이다 한계레신문 (2010. 11. 23).

11) 문화체육관광부 (2016). 체육백서. 문화체육관광부. 501



출처: shutterstock

류를 활성화하였다. 남한과의 교류는 북한의 스포츠뿐만 아니라 침체된 북한 경제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0년대의 북한 정권은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여전히 중앙계획경제체제는 마비 상태였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장마당(자본주의 시장시스템)이 활성화되었다. 따라서 북한정권은 시장을 부분적으로 공식화하는 경제개편[12]을 단행하였다. 또한 북한정권은 남북한 스포츠교류를 통해 북한정권이 가지고 있는 호전적 이미지를 지우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정권은 관광사업을 활성화하여 외화획득을 시도하였다. 그 대표적 예가 금강산관광과 아리랑축전(집단체조)[13]이다. 따라서 북한의 스포츠교류는 단순히 인적 교류차원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스포츠교류를 통해 북한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여 외화 획득이라는 경제적 목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2) 북한정권은 장마당을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제 등의 정책방안들과 합영 · 합작, 경제특구정책도입, 인센티브부여, 독립채산제, 개인텃밭(뙈기밭) 허용 하였다. 조정아, 조영주, 조은희, 최은영, 홍민 (2013) 새로운시대의 탄생: 북한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통일연구원 총서. 35.

13) 김정일 정권은 아리랑축전을 관광홍보를 위해 아리랑홍보사이트를 만들었으며, 아리랑축전과 더불어 여러 관광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외국관광객 유치실패와 장기적인 아리랑축전 연습으로 주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었다.



출처: shutterstock

2010년– 2015년 남북한 스포츠교류

2000년대의 활발하였던 남북한 스포츠교류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8건으로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2015년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다. 그 원인으로는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피격사건과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북한의 핵실험 등이 꼽힌다. 이로인해 남북 간의 관계가 경색되어 결국 대치국면에 까지 이르렀다. 특히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금강산관광중단과 개성공단 폐쇄라는 경제적 제재조치를 통해 남북관계는 긴장국면으로 치달았으며, 이는 정치와 경제 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한 스포츠교류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북한 역시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체제의 불안전성이 높아졌다. 김정은 정권은 이시기에 체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체육강국건설'[14], '김정일 애국주의'[15], '김일성–김정일주의'[16] 등을 내세우며, 김정은을 젊고 역동적인 지도자[17]로 상징화 작업에 전념하고 있었다.

14)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체육인들이 세계적인 패권자가 될 높은 목표를 가지고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며 체육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체육의 대중화방침을 관철하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야합니다. 로동신문. (2014. 1. 20)

15) 김정일 애국주의는 김정은이 당 중앙위원회 담화('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는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2012. 7. 26)')에서 처음 공식화하였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2014 북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44

16)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추상화한 것이다. 김근식(2014). 김정은 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한국과 국제정치 84. 66.

17) 김정은의 지도자 이미지를 젊은 김일성의 모습으로 형상화 하고자하였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의미와 향후 전망

2018년 평창겨울올림픽 직전에 한동안 경색되었던 남북 관계가 스포츠교류를 통해 또 한 번 완화되었다. 남북한 선수단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전에 북한의 마식령스키장에서 합동훈련(2018년 1월 31– 2월1)을 하였으며, 북한 선수단 46명(선수 22명, 임원 24명)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하였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교류뿐만 아니라 남북한은 문화(예술단) 교류까지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 간에 맺어진 '판문점 선언' 그리고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졌다.

지금까지 남북한 스포츠교류 역사의 조망과 독일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앞으로의 남북한 스포츠교류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남북한 스포츠교류를 경제협력과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 김정일 정권과 김정은 정권은 사회주의 체제 유지와 더불어 경제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김정일은 아리랑축전을 관광상품(금강산관광도 포함)으로 내세워 국가차원에서 외화벌이를 장려하였다. 또한 김정은 정권의 경우 원산, 칠보산, 백두산 등 3개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이들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원산은 '원산–금강산 지구 종합관광계획'을 통해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관광특구이다. 또한 원산에는 제2국제공항인 갈마비행장이 자리잡고 있어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18] 따라서 남북 간의 스포츠교류를 진행하면서 북한의 스포츠의 특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그 효과가 크다고 보인다.

두 번째는 남북한 스포츠교류를 미디어와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접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72년 뮌헨올림픽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동서독은 뮌헨올림픽을 계기로 다양한 교류협정[19]을 맺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스포츠교류뿐만 아니라 학술, 지방자치단체, 방송, 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가 확산되었다. 특히 동서독간의 미디어 교류가 중요하였다. 동서독의 방송교류를 통해 동독주민은 서독의 정치, 경제적 사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물론 동독 정권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송교류를 통해 동독주민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는 한편, 민족적 동질감과 통일 의식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스포츠교류에 있어서도 스포츠 프로그램과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경기의 중계를 통해 교류의 영향력을 경기를 직접 관람하는 북한주민뿐만 아니라 방송중계를 시청하는 북한의 전 주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20] 또한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은 중국을 통해 생필

18) 현주(2015). 김정은 시대의 체육정책과 남북체육교류 활성화 방안. 제96회 전국체전기념 제53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발표회 및 평화통일 국민공감대 확산 세미나. 80–81.

19) 1971년 12월 17일 스포츠교류 협정과 통행협정(1972. 5. 26) 기본조약(1972. 12. 21: Grundlagenvertrag), 동서독체육교류의정서(1974. 5. 8)까지 체결했다. 통일부 · 주독대사관(1993). 동서독 교류 협력 사례집. 통일부. 662–669.

20) 북한이탈주민과의 면접에 따르면 많은 남북한의 스포츠교류경기가 텔레비전(조선중앙텔레비죤)으로 중계가 되지 않아 북한의 일반주민들이 남북한의 스포츠교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남한문화콘텐츠를 TV로 직접 시청을 하고 있다. 평양 지역의 경우에는 남한의 TV 송신 전파를 통해 실시간 시청을 하고 있으며, 중국 인접지역은 중국 TV를 통해 남한방송을 시청한다. 현주 (2016). 남한 드라마 시청이 북한 주민들의 정치의식 등에 미치는 영향. 통일부. 45–48



출처: shutterstock

품과 더불어 남한의 문화콘텐츠(드라마, 음악 등)가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남한사회에 대해 동경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변화는 남북한의 문화적 교류에 기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21] 따라서 문화콘텐츠와 결합된 스포츠 교류는 남북관계의 개선뿐만 아니라 북한사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도구이다. 지금부터라도 문화콘텐츠를 연계한 스포츠교류 프로그램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의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있지만,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스포츠교류는 북핵문제라는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풀어줄 실마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글에 실린 내용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1) 현주, 안지호 (2017). 남한드라마 해석을 통한 북한주민의 심적습성에 관한 연구: 파노프스키(Erwin Panofsky)의 도상해석학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9(1), 243–246.